

마라톤으로 동서 우의 다진다

내일 월드컵경기장서 영·호남 친선 역전경주대회
광주·부산 등 8개 시·도 200여 건간 힘찬 스타트

제6회 영·호남 친선 역전경주대회는 오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스타트 총성을 울린다.
광주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영·호남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도별로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개최지 광주를 비롯 부산·대구·울산·전남·전북·경남·경북 등 8개 시·도에서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경기장에서 나주 금천 우영타워 순환 총 7구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풍암지구 대우 아파트-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늘개 고가도로 밑-해안도시가스 충전소까지 1구간이며, 이어 서창농협 서창지소-한일 베라레 아파트 앞까지 2구간, 대촌교차로-무학초-승촌동 버스종점까지 3구간 그리고 신가고-금천 우영타워를 돌아 다시 승촌동 버스종점까지 4구간으로 나뉘

어진다. 나머지 5·6·7구간은 출발 역순으로 지정된다.
이번 대회에서 구간별 1~3위 개인상과 최우수 단체·선수·감독상 등이 주어진다. 이 대회는 부산·대구·울산·전남·전북·경남·경북 8개 시·도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영·호남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2015 하계U대회는 물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간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유럽원정 필승을 다짐하며

축구국가대표팀의 유럽원정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파주 NFC에서 열린 훈련에서 이근호 등 선수들이 공력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2관왕 성시백 유일한 '금빛질주'

한국 쇼트트랙 월드컵 부진... 밴쿠버 동계올림픽 비상

한국 쇼트트랙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예선전으로 치러지는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성시백(용인시청)이 2관왕을 올렸지만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금메달 2개에 머무는 부진에 빠졌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성시백은 9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끝난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남자부 1,000m 결승에서 1분25초92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팀 동료 이정수(단국대·1분26초038)와 함께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시백은 이어 열린 남자 5,000m 계주에

도 이정수-김성일(이상 단국대), 곡윤기(연세대)와 호흡을 맞춰 6분53초899로 캐나다(6분53초941)를 0.042초 차로 간신히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하지만 성시백만 금메달 2개와 은메달(1,500m) 1개를 차지했을 뿐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해 세계 최강 전력의 자존심을 살짝 구겼다.
한국은 이번 3차 대회에서 성시백 외에 조해리(고양시청)가 여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땀, 이정수가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종목에서는 금메달 1개에 은메달 2개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꼭 살아남아 월드컵 본선 무대 밟겠다"

허정무호 태극전사들 '적자 생존' 한목소리

"그동안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다. 마치 막이라 생각한다"(김남일·사진) "마치 처음 대표팀에 뽑힌 것 같은 심정이다. 살아남겠다"(김두현) "절대 다치지 않겠다"(염기훈) "유럽 날씨와 잔디를 경험해봤다.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이동국)
처한 상황은 달라도 태극전사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겠다는 꿈이다.

9일 늦가을의 쌀쌀함이 느껴지는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 유럽원정을 앞둔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저마다 주전 경쟁의 의지를 다지면서 속속 입소했다.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가장 강렬한 소감을 밝힌 선수는 '터프가이' 김남일(고베).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최고 스타로 떠올랐던 김남일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대표팀 해외 원정에 따라가게 돼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남일은 "이번이 (허정무호) 세 번째 대표팀 합류다. 지난 경기를 되돌아보면 내 모습이 기대 이하였다. 경기력도 떨어지고 불안속스러웠다"라며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남일은 특히 "그동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며 "다른 후

배들에게는 없는 나의 장점을 살려야 대표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터프한 이미지를 코칭스태프에게 많이 심어주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올해 K-리그 득점왕에 오른 '라이언킹' 이동국(전북) 역시 세 번째 주어진 기회를 꼭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이동국은 "경쟁은 월드컵 본선 직전까지 계속된다.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한 만큼 빨리 팀에 녹아들어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표팀 북극곰이 시급한 이동국은 "유럽 날씨와 잔디를 이미 경험해봤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상을 털고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경쟁체제에 뛰어든 '골 넣는 수비수' 과제워(전남)와 '중원의 해결사' 김두현(수원)의 각오도 만만치 않았다. /연합뉴스

이강석 銀·이규혁 銅

빙속월드컵 500m 1차대회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강석(22·의정부시청)이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땀다.
이강석은 9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5초10에 결승선을 통과, 터커 프레드릭스(미국·35초06)에 0.04초 뒤진 2위로 끝났다.
함께 출전한 이규혁(29·서울시청)도 이강석과 같은 35초10을 기록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이강석에 0.005초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7일 1차 레이스에서 34초80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이강석은 이날도 출전한 22명 중 가장 빠른 9초59만에 초반 100m를 주파하며 역주했으나 후반 속도가 떨어져 프레드릭스에게 1위를 내주고 말았다. /연합뉴스

광산에 인라인스케이팅장 개장

220m 안전 펜스 설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광주에 대규모 인라인 스케이팅장이 들어섰다.
광산구 첨단인라인스케이팅장이 8일 개장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사업비 4억원(국비 1억2천만원·시비 1억4천만원·구비 1억4천만원)을 들여 지난 4월 착공된 스케이팅장은 3천319㎡ 규모이며 바닥은 아스콘 소재로 되었다. 특히 스케이팅장 둘레에 220m의 펜스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했다.
또 첨단인라인스케이팅장은 인라인 스쿠들이 아닌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었다.
광산구는 스케이팅장 운영·관리를 생활체육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 위탁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에 국제규격을 갖춘 경기장이 수완지와 나주 등 2곳에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첨단인라인스케이팅장이 개장됨에 따라 일반인들은 물론 인라인 쏘나들러에게도 좋은 연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측은 "앞으로 어린이 강습교실을 운영하고 내년 초에는 지역동호인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022 월드컵축구 유치위 총회...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2022년 월드컵 축구 유치위원회(위원장 한승주)는 10일 오전 11시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날 총회에는 한승주 위원장을 비롯해 유치위원회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문동후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조직위원회 부회장,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출범한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내년 7월 독일에서 열린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등 각종 FIFA 주관 대회에 유치위원을 파견해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정부 승인을 접한 유치계획서를 내년 5월 FIFA에 내고 같은 해 8월 실사단의 점검을 받는다. /연합뉴스

10일(화)
▲월드그랜드 챔피언스컵 여자배구 <도미니카 : 브라질>(15 : 00), <일본 : 대한민국>(19 : 00·MBCSPN)
▲프로농구 <KCC : LG>(18 : 50·SBS스포츠)
▲V리그 <LIG손보 : 현대캐피탈>(18 : 50·KBSN SPORTS)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6986 ☎ 972-8004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 보통층 16억/월세 750만/층자 6억
- ▶신축 무인텔 메세(여관)
 - 토지 735평, 건물 830평
 - 객실 34실(매가 68억)
- ▶상가매매(침단)
 -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 권장업종 : 의류, 편의업, 인형, 푸드
- ▶상가임대
 - 아파트 1300세대 입구
 - (복구연제동) - 1층 11평
 - 인대가 평등500만원
 - 전입증 가능

● 구 합 ●

- 골프 연습장 부지·광주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사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각,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0-3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 ▶전남 나주시 영생동
 - 배·부·과수원 수평 17년 430주
 - 철근 40평, 도로 사정양호
 - 매가 7억
 - 매가 7억 7천
- ▶광주 광산구 용복동
 - 담 550평, 정방 9천평
 - 도로, 주차지 양호
- ▶전남 영광군 북간면 차리리
 - 입면 437.36㎡(7,180㎡) 정방 7천평
 - 대형지 진입가능
- ▶전남 보성군 북하면 장촌리
 - 입면 1380㎡ - 정방 3천평
 - 도로, 남향, 아산 접사도원만
- ▶전남 함평 유곡리
 - 전 4830㎡ 매가 3억2천만
 - 기숙모지 및 주말농장
 - 모지임대조건 매우 양호
- ▶광주 북구 대평동 영학공업 부근
 - 담 884㎡(281평) 매가 1,500만
 - 원 전제로 사용가능 20년만
 - 아파트 4사지, 민원소지 없음
 - 도로, 기숙모지 및 주말농장 적함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차리리
 - 입면 145㎡ 정방 1만2천
 - 도로입 입면이 현 수능은 편해나우
 - 순, 경토지에 80평정지, 발전소
- ▶전남 담양군 화산면 불개리
 - 도로입 정방 1만
 - 계획면적 약 800평, 차량진입가능
 - 전원농업도 사업 및 전매가능 적함
- ▶전남 담양군 화산면 화산리
 - 입면 28.157㎡(77평) 정방 1만
 - 토지주권 전·부 170주 사지, 공장 및 경
 - 고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
- ▶전남 보성군 광덕면 수남리
 - 입면 2,567.157㎡(77평) 정방 1만
 - 토지주권 전·부 170주 사지, 공장 및 경
 - 고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
- ▶전남 담양군 화산면 불개리
 - 도로입 정방 1만
 - 계획면적 약 800평, 차량진입가능
 - 전원농업도 사업 및 전매가능 적함

※ 중요하신 각종 토지청 관련 최신은 더하여 드립니다.

해령 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경매가	최자가	비고
전남 (광주·전남 지역)	광주	신항동	21/711	194,500	194,500	신한
		북구	287/149	201,100	201,100	신한
		남구	116/245	372,000	372,000	신한
		남구	172/304	3,920	3,920	신한
		남구	501/290	3,920	3,920	신한
	전남	담양군 화양면	182/244	195,500	195,500	신한
		담양군 화양면	417/194	417	417	신한
		담양군 화양면	559/258	559	559	신한
		담양군 화양면	1447/785	1447	1447	신한
		담양군 화양면	468	468	468	신한